



매화꽃 다시 핀 범어사

시방세계 꽃피는 자리 만들고

달라진 햇살, 폭신해진 돌계단,
시끄러워진 산새들,

봄기운 완연한 도량..

도량엔 봄기운이 완연하다.
달라진 햇살, 폭신평신했던 돌계단, 시끄러워진 산새들.
겨울 한 철 살고 간 수좌의 뒷모습은 잊혀져가고,
기다린 소식처럼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온다.
공양간 곁에 있는 돌담 아지랑이 속에서 어슬렁거리고,
꽂지 깊은 산새는 객쩍게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앉는다. 봄이다.

법당마다 목탁소리가 울린다. 사시마지(巳時麻旨)를 든 행자 셋이 각자 법당 앞에 선다.
부처님과 가장 가깝게 서는 시간, 마치 뜬 두 손 위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멈춰서고
마주친 부처님의 두 눈에서는 부처님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가온다.
삼층석탑을 지날 때 들었던 풍경소리가 법당 문 앞에 와 있다.

연화실 돌담 위에는 흰 매화가 활짝 피었다.
매화 꽃잎 사이로 마침 무비 스님이 언뜻언뜻 보인다.
이태 전 연화실 마당에서 무비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.
스님은 앞뜰의 커다란 소나무를 가리키며
"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.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
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."

매화는 시방세계(十方世界) 꽃피는 자리를 만들고,
그 옛날 범어사에서 머리 깎았던 스님은 이제 연화실 마당을 거닌다.
글·사진=박재완 기자 wanhollo@hanmail.net

범어사는...
신라 문무왕(678년) 때 의상 스님이 해동 의상십찰중의 하나로 창건했다.
의상 스님과 원효, 남백 등 많은 고승들이 수행 정진했으며 구한말 주지 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선실대본산으로 명명하고 경어 스님을 조실로 모셨다. 조선 선조 25년(1522) 임진왜란 때 도량이 모두 소실했으나 광해군 5년(1613) 이후부터 크고 작은 개수 및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.

베스트하체적
신간



찾아온 일진, 시간만 가지고
왜 왔는지
무엇이 탈났는지
어떤 귀신이 붙었는지
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
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
특수 초사법!

귀신뽑는 래정비법!

백초귀장술 개인지도

명리,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!
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!
신국판/양장본/567쪽/정가 120,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